

# 대학생의 성에 따른 신체만족도와 외모향상행동과의 관계\*

## Relationship between Body Satisfaction and Appearance Enhancement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조혜란 · 최종명\*\*

충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패션디자인정보학과

Hye Ran Cho · Jongmyoung Choi

Dept. of Fashion Design Inform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body satisfaction and appearance enhancement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234 college students in Cheong-ju area, Korea. Frequency, descriptive analysis,  $\chi^2$  and t-test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Male students were generally satisfied with their height but not with their weight, while female students were not satisfied with their height and weight. There were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s in satisfaction with their skin color: male students were mostly satisfied with their skin color other than female students. The body satisfaction degree of college students depended on gender: the male students showed more satisfaction with their physical condition than the female students. Of the college student's improving-appearance behaviors such as face-lifting by plastic surgery, make-up by cosmetics and skin care, their preferable choice depended on their gender. When purchasing clothes, they considered if the clothes could cover their defects of their body line and improve their physical appearance. The levels of body satisfaction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ir appearance enhancement behaviors.

Key Words : body satisfaction, appearance enhancement behavior, gender, college students

### I. 서론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고교 시절까지 학교별로 지정된 교복을 착용하다가 대학에 입학하면서 의복을 통한 자기 표현이 가능해지므로 자신의 가치관과 태도를 기준으로 의복을 선택, 착용하게 되고, 자신의 외모 및 의복에 대한 관심이 더욱 많아지게 된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다른 어떤 연령층보다도 외모와 의복에 민감하고 연예인들이나 또래의 패션, 의복구매행동 등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

오랫동안 일반적으로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외모에 더 집착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의복을 포함한 패션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의 모두가 여성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유정하, 이순홍, 1996). 그러나 오늘

날 가치관과 생활양식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남성들의 상품구매행동도 변화하여 과거와는 달리 상품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기 원하며 생활용품 전반에 걸쳐 관심을 보이는 적극적 구매 주체로 변화하고 있다(김찬주, 홍금희, 1996). 따라서 여성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패션과 외모에 대한 관심과 추종이 남성들에 있어서도 일반화되고 있는 경향이다(김주희, 박옥련, 2005).

한편, 개인의 의복선택과 의복에 대한 만족도는 자신의 신체 및 외모에 대한 스스로의 만족도와 관계가 있지만, 최근에는 자신의 판단보다는 타인의 의견이나 충고, 매스미디어를 통해 비춰지는 사회 전반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미를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매스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미의 기준과 내용은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을 전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21세기가 개성을 중시하는 시대라고 하지만 언젠가부터

\* 이 논문은 2006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Corresponding author: Jongmyoung Choi

Tel: 043) 261-2791, Fax: 043) 261-2791

E-mail: jmchoi@cbnu.ac.kr

우리 사회는 미에 대해 무리한 기준을 세워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즉 언론과 광고에서는 하나같이 인형 같은 여성들, 여자만큼 예쁜 남성들, 나이가 들어도 늙지 않는 중년들을 치켜세우며 성형강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들을 만큼 성형수술에 대해 관대해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얼짱, 몸짱, 꽃 미남 등 외모의 중요성을 알리는 신조어들이 생겨나는 외모지상주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 외모지상주의가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상적인 외모를 가꾸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는 등 소비문화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어떤 연령층보다도 사회적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외모와 의복에 민감한 대학생 소비자들에게 신체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시키고 적절한 외모관리를 위한 자료를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지 그동안 경험한 외모관리행동은 무엇이고, 외모와 관련된 의복행동 등을 조사하여 성에 따른 차이를 고찰하고 신체만족도와 외모향상행동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신체만족도

신체 만족도는 신체의 여러 부분과 신체의 기능에 대한 만족감의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의 신체 각 부위에 대하여 가지는 만족도라 할 수 있다(Secord & Jourard, 1953). 인간의 자아는 신체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로 구분되는데, 신체적 자아는 신체구조와 특성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외모에 대한 만족 혹은 불만족으로 다루어져 왔으며(Ryan, 1966), 신체 각 부위에 대한 감정은 자아에 대한 감정과 일치하며 신체가 고통을 받거나 불안한 상황일 때 신체만족도가 낮다고 하였다(박찬부, 1978).

의복은 신체적 자아와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데, 신체 만족도가 높은 대학생은 의복의 심미성과 주위 집중성을 중요시한다고 하였고(이명희, 1982), 여대생은 자아 존중감이 높을수록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신체만족도는 의복에 대한 세련됨과도 정적인 상관성이 있다고 하였다(Ford & Drake, 1982). 중년 여성의 경우 자신의 신체에 만족할수록 의복에도 만족하고 자신의 의복이 몸에 잘 맞는다고 느낀다고 하였다(이영윤, 1981).

한편, 의복 만족도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의복의 가

치 수, 용도, 가격 및 색상 등에 대한 만족감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Mclean, 1978). 의복에 대해 불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의복이 자신의 신체와 일치하지 않는데 있다. 의복이 자신의 신체와 얼마나 잘 맞는가와 같은 의복의 맞음새에 대한 만족, 불만족은 단순한 의복과 신체와의 관계를 넘어선 사회적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체중조절행동과 연관될 수 있다(서화숙, 송정아, 2004). 또한 의복 만족도는 외모의 만족과 더불어 사회활동 참여 및 여가활동과 밀접한 상호관계가 있고(김재숙, 1976), 자기 자신이나 타인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사람이 자신의 의복에 대해서도 만족하는 편으로 나타났으며(김양진, 강혜원, 1992),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에 만족하는 여성일수록 그 부위에 꼭 맞는 의복을 선호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이영주, 1999). 또한 이상적 체형을 목표로 하는 젊은 연령층이 특히 이상적 체형을 이룰 수 없는 데서 오는 불만감으로 신체만족도가 낮으며, 따라서 체중감량, 보디빌딩, 성형수술 등을 통해 이상형에 가까워지기 위해 시도를 하게 된다고 하게 된다고 하였다(Labat & Delong, 1990).

### 2. 외모향상행동

타인을 지각하는 첫 번째 단서 중의 하나가 그 사람의 신체적 외모이다. 외모는 의복을 포함한 신체 자체에 의해 창출되는 이미지와 시각적으로 지각된 신체변형의 혼합체를 의미한다. 즉 개인의 외모에 대한 개념에는 신체 이미지와 의복착용 특성이 동시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김미영, 1983; 권수에 등,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 외모는 신체이미지와 의복을 포함한 개념으로 정의한다.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태도는 외모에 대한 관심과 행동으로 표현될 수 있다. 청소년기는 사회성의 발달로 사회적 활동이나 대인관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는 자신의 신체와 용모에 큰 관심을 가지며(김양진, 강혜원, 1992), 성형수술을 통하여 신체의 변형을 원하는 여성들은 신체기능보다는 신체 외모에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이경희, 1992). 또한 노년 여성들은 자신의 외모가 훌륭하다고 느낄 때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여 타인과 접촉하게 되고 자신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발전한다고 하였다(이명희, 이은실, 1997). 따라서 외모에 대한 관심은 연령에 상관없이 높을 수 있다.

특히 오늘날 우리는 매스미디어를 통해 외모에 대한 사회적 이상을 지각하며 사회적인 비교를 통하여 자신의 외모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된다. 즉 매스미디어는 사람들

에게 사회의 전통과 규범을 가르치는 사회화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의 공통적인 경험의 토대를 넓히고 공통성을 형성하는 한편,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획일화시킴으로써 문화의 다양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매스미디어에서 보여지는 날씬하고 매력적인 사회적 외모의 기준은 소비자들의 외모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는 동시에 자신의 신체에 불만족하게 되며 이를 개선하고자 외모관리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외모향상행동이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때 기대대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도구, 즉 의복, 화장품, 액세서리, 소품 등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Roach & Eicher, 1965). Kaiser(1990)는 외모관리행동은 자신의 타고난 외모는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개인은 사회적 기준을 내면화하여 자신의 신체를 평가하고 이상적인 신체모습과 자신과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체중조절, 화장, 성형수술, 피부관리, 착의 등의 행동을 통해 자신을 변화시키고 향상시키도록 동기화된다고 하였다.

한편, 미국 여대생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방법으로 조사한 결과, 현대 서구사회의 이상적 미의 기준은 날씬함, 매력, 체력 등으로 나타났으며, 서구여성들은 운동을 통한 외모관리를 중요시한다고 하였다(Rudd & Lennon, 2000).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외모향상행동을 자신의 외모에 대한 관심정도에 따라 자신의 신체적 외모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행해지는 행동으로 정의하고, 체중조절, 성형수술, 화장, 피부관리 등의 외모관리행동과 의복을 통한 외모향상 등의 의복관련행동으로 구분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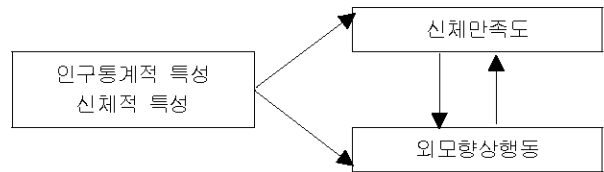
#### 1. 연구문제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으며, 본 연구의 모형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신체 만족도는 어떠한가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둘째, 대학생의 외모향상행동은 어떠한가,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셋째, 대학생의 신체만족도와 외모향상행동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



[그림 1] 연구모형

#### 2.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충청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이었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설문지법에 의하였으며, 본 조사는 2005년 5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실시하여 234부를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학년별로는 1~2학년(60.7%), 전공계열별로는 인문사회계열(57.6%), 월평균 용돈은 20~30만원(32.5%), 월 평균 의복비는 5~10만원(35.5%)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표 1> 조사 대상의 특성 (n=234)

	구분	빈도	%
성	남	134	57.3
	여	100	42.7
학년	1~2	142	60.7
	3~4	92	39.3
전공계열	인문·사회	135	57.6
	자연	41	17.6
	예체능	58	24.8
가정의 월 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25	10.7
	100~200만 미만	48	20.5
	200~300만 미만	69	29.5
	300~400만 미만	52	22.2
	400만원 이상	40	17.1
한달 용돈	10만원 미만	27	11.5
	10~20만원 미만	55	23.5
	20~30만원 미만	76	32.5
	30~40만원 미만	36	15.4
	40만원 이상	40	17.1
한달 평균 지출 의복비	5만원 미만	74	31.6
	5~10만원미만	83	35.5
	10~20만원 미만	57	24.4
	20만원 이상	20	8.6

### 3.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인구통계적 특성, 신체적 특성, 신체만족도, 외모향상행동(외모관리행동과 외모관련의복행동) 및 최근 구입한 의복종류와 만족도 등으로 구성하였다.

신체만족도는 신체의 여러 부분과 신체의 각 기능에 대한 만족감의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측정은 선행연구(홍금희, 2006; 서화숙, 송정아, 2004)를 참고로 하여 신체를 15부위로 나누어 5점 척도(1점: 매우 불만족, 5점: 매우 만족)로 측정하였으며, 전체 신체만족도는 각 항목을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신체만족도의 신뢰도계수(Cronbach's  $\alpha$ )는 0.92이었다. 또한 신장과 체중 및 피부색에 대한 만족도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이현옥, 박경애, 2000).

외모향상행동이란 타인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때 자신이 기대하는 대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 즉, 의복, 화장품, 액세서리 등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외모관리행동에는 운동이나 식품섭취, 식단 조절을 통한 체중조절 행동이나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수술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황진숙, 김윤희, 2005; 서화숙, 송정아, 2004; 김선희, 2003)를 참고로 하여 외모관리행동은 각 항목에 대한 경험의 유무를 조사하였다. 또한 의복을 통한 외모관련행동에 대한 4문항을 선행연구를 참고로 5점 척도로 작성하여 조사하였으며,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0.79이었다.

### 4. 자료분석

조사된 자료는 SPSS/WIN 10.0을 이용하여, 문항별 특성에 따라 빈도(백분율)와 평균(표준편차)을 산출하였으며, 성에 따른 신체만족도와 외모향상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chi^2$ -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성에 따른 신체만족도와 외모향상행동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신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 대학생의 신장과 체중 및 로러지수

	남학생 평균(표준편차)	여학생 평균(표준편차)	t-값
신장(cm)	176.2(4.2)	162.2(3.8)	26.1***
체중(kg)	72.7(15.0)	51.9(5.5)	13.1***
로러지수	1.31(0.19)	1.21(0.12)	4.29***

\*\*\* p<.001.

## III. 결과 및 고찰

### 1. 신체만족도

#### 1) 신장과 체중 및 피부색에 대한 만족도

조사대상인 대학생의 신장과 체중을 조사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남학생의 평균 신장은 176.2cm이었고, 여학생은 162.2cm로 성에 따른 신장의 차이는 약 14cm이었으며, 평균 체중은 남학생 72.7kg, 여학생 51.9kg으로 약 20kg의 차이가 있었다.

한편, 신장과 체중으로 로러지수를 산출한 결과, 남학생은 평균 1.31, 여학생은 1.21로 나타나 두 집단 모두 정상 체형에 속하였다. 그러나 여학생의 로러지수가 남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다소 마른 체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남녀 대학생들의 신장과 체중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장과 체중에 대한 만족도는 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어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의 경우 신장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편이었으나 체중에 대해서는 만족하지도 불만족하지도 않는 편이었으나, 이에 비해 여학생은 신장과 체중 다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의 경우 신체만족도가 다소 낮은 편이었고, 특히 체중에서 가장 불만족하였다는 연구결과(추태귀, 2002)와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여학생은 현재보다 키가 더 크기를 바라고 체중은 감소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피부색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학생은 피부색에 대해 만족하는 편이였으나, 여학생은 불만족스러운 것

<표 3> 성별 신장과 체중에 대한 만족도

	남학생 평균(표준편차)	여학생 평균(표준편차)	t-값
신장	3.14(0.89)	2.80(1.05)	2.55**
체중	2.98(1.14)	2.44(0.95)	3.81***

\*\* p<.01, \*\*\* p<.001.

<표 4> 성별 피부색에 대한 만족도

	남학생 평균(표준편차)	여학생 평균(표준편차)	t-값
피부색	3.55(1.14)	2.88(1.04)	4.61***

\*\*\* p<.001.

으로 나타났다. 피부색에 대한 만족도는 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어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피부색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신체부위별 만족도

대학생의 신체부위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3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미만은 불만족이고 그 이상은 만족에 속한다. 남학생은 거의 모든 항목에서 3점 이상의 점수를 보여서 자신의 외모 및 신체에 대해 만족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반면 여학생은 거의 모든 항목에서 3점 이하의 점수가 나왔는데, 이는 대부분의 신체 부위에 대해서 불만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장선철, 송미현, 2004) 및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유경숙, 1996)에서와 같은 결과를 보였는데,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고 미에 대한 욕구가 더 크고 간절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신체부위별로 만족하는 정도를 알아보면, 남녀 대학생 공통적으로 눈, 목, 코 등 얼굴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편이었으나, 배, 엉덩이, 다리 등의 하체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족하는 편이었다. 여기서 목은 눈에 띄

게 짧거나 굵지 않는 이상 미의 기준이 확실치 않고 잘 인식되지 못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만족도 평가에 있어 관대한 편이라고 생각되며, 배와 엉덩이는 의복 착용시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이고, 다리는 앞서 고찰한 것처럼 신장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불만족 정도가 크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신체만족도는 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모든 부위에서 남학생의 만족도가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눈, 목, 눈, 팔, 얼굴형, 코, 어깨 등의 순서로 모든 신체부분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편이었으나, 여학생은 목 부분에 대해서만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다리, 팔, 배 부분에 대한 불만족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로 알 수 있는 점은 남녀 대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얼굴의 이목구비에는 만족을 하지만 전체적인 몸매를 결정짓는 바디라인에 대해서는 불만족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통적으로 체중, 배, 엉덩이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았고, 남학생은 신장과 허리, 여학생은 다리와 팔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었다. 요즘 몸매 신드롬의 영향으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신장과 체중, 그리고 배와 엉덩이(힙 라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 부위에 대해서 만족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남학생의 경우 의복 착용 시 잘 드러나지 않게 되는 배, 엉덩이, 허리 등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지고 있어 이 부분이 개선되길 원했으며, 여대생의 경우 다리나 팔 등 의복 착용 시 노출이 되며 굵기가 강조되는 부위에 대해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신체 15부위에 대한 만족도를 주성분분석과 적교회전에 의하여 요인분석한 결과, <표 6>과 같이 3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여기서 두 요인에 중복되어 분포된 팔과 어깨 만족도는 제외하였다. 요인 1은 상반신 만족도로 명명하였고 설명력은 29.0%이었다. 요인 2는 하반신 만족도로 설명력은 27.7%이었으며, 요인 3은 손/발 만족도로 15.7%를 설명하였다. 따라서 이들 세 요인의 총 설명력은 72.4%이었고, 신뢰도는 각각 0.87, 0.92, 0.83이었다.

여기서 세 요인별 신체만족도를 살펴보면, 얼굴을 포함한 상반신 만족도가 평균 3.26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고, 하반신 만족도가 평균 2.92로 나타나 만족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여성의 경우 연령에 차이 없이 하체의 만족도가 낮았다는 연구 결과(홍금희, 2006)와 일치하고 있다.

<표 5> 대학생들의 성별 신체 만족도 차이

신체부위	남학생 평균(표준편차)	여학생 평균(표준편차)	t-값
머리	3.48(1.03)	2.84(0.87)	5.02***
눈	3.76(0.88)	3.29(0.78)	4.22***
코	3.57(1.05)	2.96(1.01)	4.43***
입	3.31(1.04)	2.82(1.06)	3.54***
얼굴형	3.60(1.00)	2.63(1.00)	7.29***
목	3.71(0.90)	3.05(0.85)	5.65***
어깨	3.57(1.06)	2.65(1.02)	6.66***
팔	3.67(0.87)	2.45(1.10)	9.44***
손	3.46(1.13)	2.89(1.10)	3.86***
가슴	3.34(1.22)	2.64(1.04)	4.62***
배	3.12(1.29)	2.51(1.04)	3.84***
허리	3.28(1.16)	2.66(0.93)	4.34***
엉덩이	3.20(1.31)	2.56(0.99)	4.06***
다리	3.36(1.12)	2.31(0.88)	7.73***
발	3.51(1.10)	2.66(1.05)	5.90***
전체 만족도	3.46(0.76)	2.72(0.56)	8.07***

\*\* p<.01, \*\*\* p<.001.

&lt;표 6&gt; 신체만족도 요인분석 결과

요인	신체부위	요인 부하량	고유치	누적 분산 (%)	신뢰도 ( $\alpha$ )	평균
상반신 만족도	얼굴형	0.87	3.73	29.09	0.87	3.26
	머리	0.80				
	목	0.76				
	입	0.72				
	눈	0.66				
	가슴	0.52				
하반신 만족도	코	0.49	3.60	58.83	0.92	2.92
	허리	0.88				
	배	0.86				
	다리	0.82				
손/ 발 만족도	엉덩이	0.80	2.03	72.45	0.83	3.18
	손	0.88				
	발	0.75				

&lt;표 7&gt; 로러지수에 의한 체형별 신체만족도 차이

신체부위별	로러지수	평균(표준편차)	F-값
상반신	여원형(n=82)	3.24(0.78)	1.67
	보통형(n=125)	3.32(0.81)	
	비만형(n=27)	3.02(0.79)	
하반신	여원형(n=82)	3.19(0.80)b	5.75**
	보통형(n=125)	2.85(1.02)ab	
	비만형(n=27)	2.46(0.88)a	
손/발	여원형(n=82)	3.04(0.93)	1.26
	보통형(n=125)	3.28(1.19)	
	비만형(n=27)	3.11(0.82)	

한편, 조사대상자의 신장과 체중으로 신출한 로러지수에 의한 체형집단별 신체만족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조사대상자인 대학생들의 53.4%는 보통형에 속했으며, 35.0%는 수척형에, 11.6%는 비만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신 만족도에서만 체형집단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하반신 만족도는 비만형보다 수척형에서 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2. 외모향상행동

### 1) 외모관리경험

대학생의 성별 외모관리경험을 조사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성형수술, 체중조절, 피부관리, 화장의 총 4가지 항목 중에 남학생은 성형을 제외한 모든 행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이 4가지 방법을 모두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가장 많이 시도해 본 외모관리행동은 체중조절, 피부관리의 순이었고 여학생이 가장 많이 시도해 본 외모관리행동은 화장, 체중조절, 피부관리, 성형수술의 순이었다. 또한 성형수술, 화장 및 피부관리는 성에 따른 차이를 보였으나 체중조절행동은 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조사대상의 학생들 중 성형을 한 남학생은 없었으나 여학생은 21%가 성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형수술이 일반화 되었다고 해도 아직까지 여성들에 비해 남성들은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준 결과라고 하겠다.

여기서 가장 많이 시도한 외모관리경험인 체중조절을 좀 더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조사대상의 44%인 60명이 체중조절을 경험하였고, 여학생은 조사대상의 64%인 64명이 체중조절을 경험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경험해 본 사람이 20%나 더 많은 것으로 보아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체중조절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체중에 대해 민감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남학생들 중엔 소수이지만 체중 증가를 목적으로 했던 체중조절경험이 있었지만, 여학생들의 경우 모두 체중 감량을 위한 체중조절이었다는 것이다.

대학생들이 효과적인 외모관리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조사한 결과는 <표 9>에 나타나 있다. 성형수술, 체중조절, 피부관리, 화장 중에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 3가지 방법을 순서별로 선택하게 하였고, 순서별로 가중치를 두어 상대빈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성에 관계없이

<표 8> 대학생의 성별 외모관리경험

빈도(기대빈도)

외모관리경험		남학생	여학생	$\chi^2$
성형수술	무(n=213)	134 (122)	79 (91)	30.9***
	유(n= 21)	0 (12)	21 ( 9)	
체중조절	무(n=110)	74 (68)	36 (51)	3.7
	유(n=124)	60 (65)	64 (48)	
피부관리	무(n=136)	89 (77)	47 (58)	8.8**
	유(n= 98)	45 (56)	53 (41)	
화장	무(n=138)	125 (79)	13 (59)	152.5***
	유(n= 96)	9 (55)	87 (41)	

\*\* p<.01, \*\*\* p<.001.

<표 9> 성별 효과적인 외모관리방법에 대한 인식 비교

빈도(기대빈도)

	1순위		2순위		3순위		상대빈도 <sup>1)</sup> (%)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성형수술	11(19)	22(14)	14(20)	22(16)	30(19)	6(17)	91 (12.1)	116 (19.4)
체중조절	106(87)	48(67)	15(30)	39(24)	9( 8)	7( 8)	357 (47.5)	229 (38.4)
피부관리	13(21)	24(16)	94(70)	31(55)	15(22)	26(19)	242 (32.2)	160 (26.8)
화장	0( 3)	6( 3)	4( 7)	8( 5)	53(58)	58(43)	61 ( 8.2)	92 (15.4)
$\chi^2$	31.4***		42.9***		18.9***		751 (100)	597 (100)

1) 상대빈도는 1순위x3+2순위x2+1순위로 산출하였음.

\*\*\* p<.001.

체중조절, 피부관리, 성형수술, 화장의 순서로 응답했다. 따라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체중조절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리고 남여 대학생 모두 성형보다는 원래 자신의 모습에서 다이어트를 하거나 피부관리 등에 의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방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외모관리행동으로 체중조절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과반수 정도는 체중조절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대학생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체중조절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그들이 경험해 본 체중조절방법을 조사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설문지 문항에는 총 13가지의 방법을 제시하였으나, 원푸드 다이어트, 식품선택 섭취, 식사량 조절, 운동, 수술, 체형관리실 이용 등의 6가지 방법에 대하여 응답하여서 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남학생의 경우 식사량 조절(6.7%)과 운동(93.3%)의 2가지 방법만을 경험했으며 여학생의 경우 식사량 조절(25.0%), 운동(53.1%), 원푸드 다이어트(12.5%), 식품선택 섭취(3.1%), 수술(3.1%), 체형관리실 이용(3.1%) 등의 6가지 방법을 모두 경험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남여 대학생 모두 공통적으로 운동을 제일 많이 경험해 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식사량 조절이었다. 그리고

여학생의 경우 소수의 응답이었으나, 원푸드 다이어트, 식품선택 섭취, 체형관리실 이용, 수술을 경험한 학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의 6가지 체중조절방법을 통해서 감량한 체중을 조사한 결과, 한 달 평균 남학생은 3.1kg을, 여학생은 2.3kg을 감량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여기서 감량한 체중 정도를 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평균 체중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남학생은 자신의 체중의 4.2%, 여학생은 4.4%를 감량한 결과가 되어 작은 차이지만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더 많이 감량했다고 볼 수 있다.

<표 10> 대학생이 경험한 체중조절방법

빈도(기대빈도)

방법	남학생	여학생	$\chi^2$
운동	56(43)	34(46)	16.4***
식사량 조절	4( 9)	16(10)	
원푸드다이어트, 식품선택섭취 등	0( 6)	14( 7)	
계	60(60)	64(64)	

\*\*\* p<.001.

&lt;표 11&gt; 성에 따른 의복을 통한 외모향상행동

의복을 통한 외모향상행동 문항	남학생 평균(표준편차)	여학생 평균(표준편차)	t-값
의복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나 자신의 외모를 염두에 둔다.	3.62(0.83)	3.44(0.79)	1.66
의복은 나의 외모적 콤플렉스를 보완시켜 줄 것이라 믿는다.	3.05(0.95)	3.12(0.82)	-0.57
특정 의복 착용시 대인관계에서 자신감이 생긴다.	3.37(0.72)	3.41(0.69)	-0.47
새로 구입한 의복을 착용하면 주위에서 한눈에 알아보는 편이다.	3.60(0.63)	3.51(0.79)	1.00
전체	3.41(0.57)	3.37(0.57)	0.53

## 2) 의복을 통한 외모향상행동

대학생의 외모향상과 관련된 의복행동을 5점 척도를 조사하여 정리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외모를 고려한 의복착용과 의복을 통한 외모 콤플렉스 보완 및 대인관계에서의 자신감 상승 등 긍정적인 효과를 묻는 문항에서는 남녀 대학생 모두 긍정적인 반응이었는데, 특히 새로 구입한 의복 착용 시 주위의 반응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대학생 모두 높은 점수를 주었다. 이는 의복이 단순히 주위의 반응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타인이 나의 의복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므로 개인의 의복 구매행동에 대한 만족감과 그 의복을 착용했을 때 생기는 자신감 등의 긍정적인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의복을 통한 외모향상 행동은 전체적으로 볼 때 성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따라서 남녀 모두 의복을 통하여 외모향상행동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녀 대학생 모두 의복을 통한 외모향상행동에 긍정적이었으므로, 최근 구입한 의복에 대한 만족도와 외모기여도를 조사하였다. 먼저 최근 구입한 의복종류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티셔츠, 셔츠, 바지의 순이었고 여학생의 경우 티셔츠, 스커트, 바지의 순이었다(표 12). 성에 관계없이 모두 티셔츠가 1위를

&lt;표 12&gt; 최근 구입한 의복종류

빈도(%)

의복종류	남학생	여학생	계
셔츠/블라우스	43(32.1)	4( 4.0)	47(20.1)
티셔츠	51(38.1)	35(35.0)	86(36.8)
바지	12( 8.9)	13(13.0)	25(10.7)
스커트	-	26(26.0)	26(11.1)
기타	28(19.4)	22(22.0)	50(21.3)
계	134(100)	100(100)	234(100)

\*\*\* p&lt;.001.

차지했는데, 이는 조사한 시기가 늦봄에서 초여름이었기 때문에 가볍게 입을 수 있는 티셔츠를 많이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사 대상자들이 저학년이 조금 더 많았기 때문에 평상시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으면서 다른 종류의 의복보다 가격대가 낮은 티셔츠를 많이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최근 구입한 의복종류에 대하여 의복에 대한 만족도와 구입한 의복이 자신의 외모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최근 구입한 의복에 대해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훨씬 많이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여학생의 경우 매우 만

&lt;표 13&gt; 최근 구입한 의복에 대한 만족도와 외모기여도

빈도(기대빈도)

최근 구입한 의복		남학생	여학생	$\chi^2$
만족도	보통	20 (20)	15 (15)	32.8***
	만족함	58 (76)	76 (57)	
	매우 만족함	56 (37)	9 (27)	
외모기여도	그렇지 않다	7 (10)	12 ( 7)	3.59 N.S
	보통	67 (65)	48 (49)	
	그렇다	60 (57)	40 (42)	

\*\*\* p&lt;.001.



족하는 학생이 10%도 안 되는 것으로 보아 남학생보다 만족에 있어서 까다로움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최근 구입한 의복이 자신의 외모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성에 따른 차이 없이 49%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42%는 외모에 기여한다고 응답하였다.

### 3. 신체만족도와 외모향상행동간의 상관성

#### 1) 성별 외모관리경험에 따른 신체만족도

외모관리경험 여부에 따른 신체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 정리한 결과는 다음 <표 14>와 같다.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생의 외모관리경험 여부에 따라 신체만족도는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남학생의 경우는 체중조절경험에 따라 신체만족도는 차이가 있어 대체로 체중조절경험이 없는 경우 신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는 성형수술경험과 피부관리 경험에 따라 신체만족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성형수술한 경우가 하지 않은 경우보다 신체만족도가 약간 높았으나, 피부관리 경험은 그 반대로 나타나서 피부관리를 한 경우의 신체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에 관계없이 자신의 신체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체중조절이나 피부관리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4> 외모관리행동경험에 따른 신체만족도 차이

		신체만족도: M(SD)	
		남학생	여학생
성형수술 경험	무(n=213)	3.46(0.76)	2.67(0.55)
	유(n= 21)	-	2.95(0.57)
	t-값	-	1.92*
체중조절 경험	무(n=110)	3.67(0.73)	2.65(0.56)
	유(n=124)	3.19(0.72)	2.78(0.56)
	t-값	3.74***	-1.12
피부관리 경험	무(n=136)	3.49(0.83)	2.99(0.30)
	유(n= 98)	3.39(0.62)	2.49(0.63)
	t-값	0.72	4.93***
화장경험	무(n=138)	3.45(0.79)	2.87(0.41)
	유(n= 96)	3.58(0.14)	2.70(0.58)
	t-값	-0.49	1.01

\* p<.05, \*\*\* p<.001.

#### 2) 성별 신체만족도와 의복을 통한 외모향상행동과의 관계

신체만족도와 의복을 통한 외모향상행동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 <표 15>와 같다.

<표 15> 신체만족도와 의복을 통한 외모향상간의 상관계수

	신체만족도	
	남학생	여학생
의복을 통한 외모향상	0.21**	0.24**

\*\* p<.01.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생의 신체만족도와 의복행동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성에 따른 차이 없이 의복을 통한 외모향상행동에 관심이 많을수록 신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체만족도에 의복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3) 신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관계

남녀 대학생의 외모관리경험, 외모향상을 위한 의복행동, 최근 구입한 의복만족도, 신체적 특성 및 인구통계적 특성변인이 신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단계적방법에 의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6>과 같다. <표 16>에서 독립변인은 연령, 신장, 체중, 로려지수, 성형경험, 체중조절경험, 피부관리경험, 화장경험, 외모향상 의복착용의 9개 변인이었다.

상반신 만족도에는 의복을 통한 외모향상, 신장, 체중조절경험, 로려지수, 피부관리경험이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 5개 변인의 설명력은 42.3%이었다. 즉 신장이 크고 마른 체형인 경우, 체중조절과 피부관리경험이 없는 경우, 의복을 통한 외모향상에 관심이 많을수록 상반신 만족도가 높았다. 하반신에 대한 만족도는 신장, 로려지수, 피부관리경험, 연령, 의복을 통한 외모향상에 대한 관심이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 5개 변인의 설명력은 28.6%이었다. 즉 신장이 크고 마른체형, 피부관리경험이 없는 경우, 의복을 통한 외모향상에 관심이 많을수록 하반신 만족도가 높았다. 다음으로 전체적인 신체만족도를 살펴보면 신장, 의복을 통한 외모향상, 체중조절경험, 피부관리경험, 로려지수가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 5개 변인의 설명력은 40.3%이었다. 즉 신장이 크고 마른 체형인 경우, 체중조절과 피부관리경험이 없는

&lt;표 16&gt; 신체만족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beta	t	R <sup>2</sup>
상반신 만족도	외모관련의복행동	.505	9.560***	R <sup>2</sup> =.423 (F=33.37***)
	신장	.394	7.445***	
	체중조절경험	-.178	-3.379***	
	로리지수	-.268	-4.713***	
	피부관리경험	-.209	-3.796***	
하반신 만족도	신장	.322	5.451***	R <sup>2</sup> =.286 (F=18.24***)
	로리지수	-.460	-7.444***	
	피부관리경험	-.267	-4.346***	
	연령	.146	2.523**	
	외모관련의복행동	.145	2.480**	
전체 만족도	신장	.430	8.005***	R <sup>2</sup> =.403 (F=30.73***)
	외모관련의복행동	.360	6.691***	
	체중조절경험	-.161	2.989***	
	피부관리경험	-.320	5.705***	
	로리지수	-.310	5.361***	

\*\*\* p&lt;.001.

경우 및 의복을 통한 외모향상에 관심이 많을수록 신체 만족도가 높았다.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주지역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체만족도와 외모향상행동을 조사하여 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 신체만족도와 외모향상행동간의 관련성을 고찰한 것으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남학생의 경우 신장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편이었고 체중에 대해서는 불만족하는 편이었으나, 여학생은 신장과 체중 다 불만족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피부색에 대한 만족도는 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어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만족하였다.

2. 대학생의 신체 만족도는 성에 따른 차이가 있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만족하였으며, 상반신에 대한 만족도가 하반신에 비해 높았다.

3. 대학생의 외모관리행동을 살펴보면 성형과 화장 및 피부관리는 성에 따른 차이를 보였으나, 체중조절 행동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4. 효과적인 외모관리방법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성

에 따른 차이 없이 체중조절과 피부관리라고 응답하였는데, 체중조절방법으로는 남학생은 운동이었고, 여학생은 운동과 식사조절이라고 하였다.

5. 대학생은 성에 따른 차이 없이 의복을 통한 외모향상행동을 추구하였다.

6. 대학생은 성에 관계없이 체중조절이나 피부관리 경험은 신체만족도와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의복을 통한 외모향상행동과 신체만족도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7. 상반신 만족도는 의복행동, 신장, 체중조절경험, 로리지수, 피부관리경험이, 하반신 만족도는 신장, 로리지수, 피부관리경험, 연령, 의복행동이, 그리고 전체적인 신체만족도는 신장, 의복행동, 체중조절경험, 피부관리경험, 로리지수가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대학생에 있어 체중조절경험과 의복을 통한 외모향상행동은 성에 따른 차이 없이 추구하고 있고 신체만족도에도 외모관련의복행동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므로, 대학생들에게 교양과목을 통하여 신체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의복작용과 관련된 내용을 강조하는 것이 요구된다.

**주제어** : 신체만족도, 외모향상행동, 성, 대학생

## 참고 문헌

- 권수애, 이은경, 최종명, 김은영 (2000) 현대사회와 의복. 도서출판 하우.
- 김미영 (1983) 여자 중 고등학생의 교복자율화와 외모 만족도에 관한 연구. 상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선희 (2003)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외모관리 행동에 대한 연구. 대한 가정학회지, 41(5), 99-108.
- 김양진, 강혜원 (1992) 의복 및 신체만족도와 학업성취도가 사회적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16(2), 197-211.
- 김재숙 (1976) 여대생의 의복과 용모의 만족도가 사회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14(1), 491-497.
- 김주희, 박옥련 (2005) 남성소비자의 패션의식에 따른 쇼핑 행동연구: 구매행동, 쇼핑성향, 정보원활용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4(1), 167-178.
- 김찬주, 홍금희 (1996) 다상품군에서의 혁신성과 의견 선도력의 증폭 성향: 남성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0(4), 620-630.
- 박찬부 (1978) 여대생의 의복형태와 자아개념과의 상관연구. 인하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논문집, 제4집, 175-194.
- 서화숙, 송정아 (2004) 여대생의 신체적 특성에 따른 신체적 만족도 및 의복만족도, 외모관리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6(3), 329-335.
- 유경숙 (1996) 티셔츠 색 선호, 외모만족도와 외향성과의 관계. 복식, 27, 75-85.
- 유정하, 이순홍 (1996) 남성복의 변화에 관한 연구: 1985년 이후 국내 남성복을 중심으로, 복식 29호, 5-22.
- 이경희 (1992) 미용성형수술을 원하는 여성의 신체상과 자기존중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명희 (1982) 예의정숙성과 심미성을 중심으로 한 대학생들의 의복행동과 관련된 심리적 변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명희, 이은실 (1997) 인구 통계적 변인에 따른 노년 여성의 외모관심과 자신감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6), 1072-1081.
- 이영윤 (1981) 중년기 여성들의 신체적 만족도와 의복행동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 이영주 (1999) 여대생의 체중조절행동과 의복만족도 및 신체노출 의복행동의 관련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현옥, 박경애 (2000) 여성 소비자의 외모만족도; 외모유형과 외모의식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8(7), 93-102.
- 장선철, 송미현 (2004) 고등학생의 외모만족도와 자아 존중감 및 학교 적응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1(3), 115-133.
- 추태귀 (2002) 신체만족도에 따른 다차원적 신체이미지와 의복추구효용. 한국의류산업학회지, 4(4), 376-382.
- 황진숙, 김윤희 (2006) 외모관리행동에 따른 신체이미지 및 심리적 안녕감. 복식, 56(3), 143-155.
- 홍금희 (2006) 외모의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비만도가 신체이미지와 신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산업학회지, 8(1), 48-54.
- Ford, IM, Drake, MF (1982) Attitudes toward Clothing Body and Self: A Comparison of Two Group.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1(2), 189-196.
- Kaiser, SB (1990)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Symbolic Appearances in Context (2nd ed.)*,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 Labat, KL, Delong, MR (1990) Body Cathexis and Satisfaction with Fit of Apparel.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8(2), 43-48.
- Mclean, FP (1978) The Process of Aging related to Body Cathexis and to Clothing Satisfa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Utah.
- Roach, ME, Eicher, JB (1965). *Dress, Adornment and Social Order*. New York: John Wiley & Sons.
- Rudd, NA, Lennon, SJ (2000) Body Image and Appearance-Management Behaviors in College Women.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8(3), 152-162.
- Ryan, MS (1996)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 Secord, PF, Jourard, SM (1953) The Appraisal of Body Cathexis: Body Cathexis and Self.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7(5), 343-347.

(2007. 04. 16 접수; 2007. 07. 23 채택)